

2004 아테네 올림픽 D-28
태릉선수촌은 지금...



불심 돈독 · 심신 단련 '금메달 내꺼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일면 스님(세번째)이 7월 16일 태릉 선수촌을 찾아 불자 선수들을 격려했다.

훈련전후 마음다스리기에 명상이 최고
올림픽 D-28. 2004 아테네 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온 7월 16일 태릉선수촌 레슬링장. 금메달 2 개를 목표로 하는 레슬링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다.
천정에 늘어선 빗줄을 타고 오르는 빗줄타기훈련을 하느라 선수들의 전신에는 땀방울이 흥건하

다. 한달도 남지 않은 올림픽 진격을 위해 본격적인 시차적응 훈련에 들어간 요즘에는 야간훈련으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올림픽 레슬링 경기가 한 국시간으로는 자정을 전후해 열리기 때문이다.
훈련 전후로 레슬링 국가대표 임대원 선수는 명상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린다. 가끔 열혈태이 프를 듣기도 한다. 절에 가서 목탁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절에 항상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즐기는 방법은 명상음악 듣기. 불자인 인 선수는 늘 마음 속 부처님에게 기도한다.
“만 생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 하죠.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결전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태릉선수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높아진다.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선수들의 땀방울은 더욱 굵어지고 기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자 선수들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조용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랐다”는 부처님의 말씀 아래 정신을 집중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참선하며 집중력 익혀... 업어지기 '한 판'
유도장에서 대련을 준비하는 이소연 선수(유도 -78kg). 대련에 앞서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정신 집중을 한다. 경기 하루 전날 대진표가 나오는 유도선수들에게 순간적인 집중력은 필수요소. 법회에서 스님에게 배운 참선을 요긴하게 이용한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 속으로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이 기민하게 이뤄진다. 이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동료들을 위해 훈련 파트너가 되어준 선수들과 함께 기술연마를 하며 기량을 닦는다. 한마음불자회의 정기 수요법회에 두 번 참석해 본 초보 불자 이복희 선수(유도 -63kg). 8월 6일 아테네로 출국하는 이 선수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정 코치를 따라 불암사 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절에 와보니 1주일 동안 훈련하느라 힘들었던 감정들을 떨쳐내고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마음 속으로 다짐하게 돼요.”
이 선수도 시합 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다. 짧은 시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법회에서 배운 참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조금씩 배워가며 편안한 부처님 품을 느끼고 있다.
前 한마음불자회 회장 정성숙 유도코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염불 참선을 배운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절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정 코치의 영향으로 선수촌 입촌 후 불자가 된 제자 선수도 여럿이다.

인터뷰

한마음불자회 회장
김인섭 선수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의 모임인 한마음불자회(회장 김인섭)는 최근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레슬링 국가대표 김인섭 선수를 새 회장으로 맞아 매주 법회를 갖는 등 달라졌다. 태릉선수촌 내 법당을 벗어나 산사에서 스님 법문을 듣는 법회방식을 선택한 것. 법회가 끝나면 스님과 다담(茶談) 시간도 가지며 훈련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다.
“법회에 참가하면 매트서 배우지 못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랄까 기준이랄까 부처님의 말씀은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장 김인섭 선수(레슬링)는 1년동안 중단했던 법회를 다시 시

선수촌 법당 벗어나 산사에서 법회 열어
“불자회 통해 모든 선수 포용하고 싶어요”

작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결성된 한마음불자회는 태릉선수촌 내 법당이 생기면서 수덕사 및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을 번갈아 법사로 모시며 법회를 꾸려왔다. 출석점검조차 하지 않는 불자회이지만 부처님 품에서 쉬어가고 싶은 모든 선수들을 포용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인섭 회장은 “일면 스님께서 ‘100m를 9.6초에 뛰는 세계 신기록 보유 선수가 11초에 뛰는 것은 자랑스럽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20초가 걸려도 최선을 다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 말씀을 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인생의 금메달도 따겠다”고 다짐했다.



매주 수요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법회를 보는 태릉선수촌 불자 선수들.

법장 스님 '원력 세워 최선 다할 것' 당부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는 틈틈이 신행생활을 병행하는 불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회부장 지원 스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등이 태릉선수촌을 찾았다. 훈련하는 선수들을 지켜본 법장 스님은 선수들과 점심공양을 같이 하며 “각자 원력을 세워 최선을 다해 정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남은 것은 마음껏 기량을 펼칠 그날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긴장으로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과정에서 실시하는 명상은 중요한 훈련 코스.
올림픽 출전 사상 최대의 금메달 13개를 목표로 선수들은 장맛비 속에서도 심신을 단련하며 마음 다스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이 불심으로 일구어낸 금메달이 기다려진다.

글=김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이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하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와불사, 용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 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제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방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 요급포함내역 (공동여행)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실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공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불포함사항: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비, 개인경비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 5일

₩ 750,000 (8월 4일, 11일, 18일)

- 황산 직항 항공 이용
구화산 2박 - 황산1박 - 상해 1박
- 8월 4일, 11일, 18일 3회 출발
- 각 회차 선착순 40명
- 비자비, 가이드 기사비 외 다 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